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 산업부장관,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긴급현안 점검회의 개요 >

- ▶ (일자) '26.2.9.(월) 08:00~08:50 / ▶ (장소)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 ▶ (참석) 산업통상부 장관, 경제단체(6개) 상근부회장* 등
 -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

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였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인곤 (044-203-4211) 박철오 (044-203-4213)

참고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 개최 개요

1. 추진 배경

- 美 관세정책, 환율 변동성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단체와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대한상의의 부적절한 통계 등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경제단체의 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논의

2.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6.2.9(월) 08:00~08:50,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6층)

* 모두발언 및 대한상의 사과문 발표까지 언론 공개

☐ 참 석 자

- 산업통상부 장관
-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 대한상공회의소(박일준), 한국경제인협회(김창범), 한국무역협회(이인호)
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 중소기업중앙회(오기웅), 중견기업연합회(김민 전무)

☐ 세부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08:00~08:03	3'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08:03~08:06	3'	대한상의 사과문 발표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08:06~08:47	41'	참석자간 토의	산업부 장관
08:47~08:50	3'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